

서구, 겨울철 자연재난 및 가뭄대책 보고회 개최

김이강 청장, 대응 매뉴얼 빈틈없이 준비 지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12개 재난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인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자연재난 및 가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을 앞두고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대설한파 등 특보 발효시 지역재난안전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과 적설 취약구조물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오갔다.

또한, 관내 주요 간선도로 41.77km에 대한 신속한 제설을 위

해 제설장비 점검과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이면도로와 경사로 등 취약지 106개소에 구청 전 직원 및 동자생단체 인원을 포함해 2천6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제설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파저감 시설인 온열의자 설치 및 한파쉼터 276개소 지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시 강수량이 평년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비상시 용수공급 대책 방안을 논의했고, 이외에도 공동주택 물절약 실천, 대주민 홍보를 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다.

김이강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스마트 버스정류장' 서비스 제공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일환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LCD 패널을 통해 날씨 등 각종 정보 습득 및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자동심장제세동기를 갖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관내 주차장 45곳의 주차면 2,192개에 대한 공유주차 서비스에 이은 대중교통 분야 두 번째 혁신 프로젝트이다.

남구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주월동 국제양궁장 앞 버스 승강장 3곳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을 완료했다"며 "이달부터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각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승강장 내 비말 확산 차단을 위해

비말이 바닥으로 수직 침강하는 수직면분사 음압 형성 시스템과 급작스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비롯해 공공 와이파이, 온열벤치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과 승강장 내에 설치한 LED 패널을 통해 날씨 및 버스도착 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쉼터 내부를 출입하는 이용자 피악을 위해 자동문에 피플 카운터가 설치돼 있으며, 스마트 센서를 통해 LED 조명과 난방 및 공기 순환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똑똑한 버스 정류장이다.

이밖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점자 터치판 및 점자 블록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제거 및 살균 기능을 갖춘 필터 시스템도 갖췄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쌀사주기 운동 전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쌀값 하락으로 시름하는 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 빛찬들쌀'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 공직자들은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광주쌀 사주기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시민 대상 홍보를 비롯해 광산구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도 빛찬들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절선물이나 답례품을 광주 빛찬들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등 소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광주 빛찬들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 추진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농민과 농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빛찬들쌀'은 지난 2021년 10월 본량동으로 새롭게 이전·설치한 광주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최신식 기계와 장비로 도정된다. 적정온도로 건조되기 때문에 찰기와 윤기가 좋고, 주분 당일 도정·배송되기 때문에 밥맛이 일품이다.

빛찬들쌀 대량구입 문의는 062-374-0061(광주통합RPC)로 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1530 가을 산책 무등 가는 길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 행사는 무등 가는 길 일부 구간(1.7km)을 동구 걷기동아리 8팀 회원과 주민 100여 명이 함께 30여 분과 함께 걸으며 진행됐다. /동구청 제공

동구, 가을 산책 무등 가는 길 건강 걷기

걷기동아리 8팀 회원·주민 100여 명 함께 참여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1530 가을 산책 무등 가는 길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 행사는 무등 가는 길 일부 구간(1.7km)을 동구 걷기동아리 8팀 회원과 주민 100여 명이 함께 30여 분과 함께 걸으며 진행됐

다. 이어 행운권 추첨,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로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동구는 주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걷기왕 선정·포상 ▲걷기 동아리 운영 ▲걷기 지도자 양성 ▲월별 걷기 쉼

린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걷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라면서 "걷기에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함께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광주 유일 2년 연속 선정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시비 19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이번 공모사업에 국제영재어린이집(삼각동), 일곡소명어린이집(일곡동), 명성어린이집(동림동), 운암어린이집(운암동) 에버빌어린이집(본촌동), 아이큰숲어린이집(신용동) 등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가 선정됐다.

북구는 올해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내년엔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23억여 원을 투입해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조명 등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절감이 필수"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북구보건소와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 등 총 18개소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서기만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무안군민의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 >

엔론보도 +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희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정차 '땀방'...군공항 이전 '답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